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에 관해 지사로부터 현민 여러분께 부탁
(요약)

5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정부의 긴급사태선언이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책으로 인해, 현 내에서는 5월 3일 이후 새로운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 내의 경계 단계를 감염상황 등에 따라서 「감염 축소기」 「감염 경계기」 「감염 대책기」의 3가지로 구분해, 감염 예방과 사회 경제 활동의 균형을 맞춘 대책을 강구합니다.

5월 11일 이후에는 「감염 대책기」에서 「감염 경계기」로 바뀌어, 현민 활동과 경제활동을 조건부로 재개하는 등의 노력을 하면서, 감염 확대의 회피를 도모합니다.

【5월 11일 이후의 현민 여러분께 부탁】

<변경 사항>

지금까지는 현 내외를 불구하고 불요불급의 외출 자제를 현민 여러분께 요청해 왔습니다.

5월 11일 이후에는 현을 벗어나는 이동, 특히 감염 확대 지역 (정부가 지정한 특정 경계 도도부현) 으로의 외출 자제는 계속해서 요청합니다만, 현 내의 이동에 대해서는 완화합니다.

또한, 전국 일률적인 정부 방침에 근거해, 시설의 구조와 영업 상태의 면에서 3 밀(밀접/밀집/밀폐)의 회피가 불가능한 변화가의 접객을 동반하는 음식점으로의 외출 자제는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이상을 바탕으로, 현민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감염확대 회피행동」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염확대 회피행동]

◇ 「감염되지 않도록 자기방어!」

잡은 손 씻기와 정기적인 환기,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건강관리 등

◇ 「감염을 확산시키지 않도록 주변에 대한 배려!」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자택 요양, 타인과 접촉 시에는 거리를 두기 등

◇ 「현 외로의 외출 자제와 3 밀 회피!」

도도부현을 벗어나는 이동의 자제, 3 밀에 해당하는 장소로의 외출 자제,

특히 감염 확대 지역과 변화가의 접객을 동반하는 음식점 등으로의 외출 자제 등

감염 예방과 사회 경제활동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여러분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이 빠지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현민 여러분께서는 현재도 경계기인 것을 염두에 두어 「감염확대 회피행동」과 「현 외로의 외출 자제와 3 밀 회피」에 유의해 주십시오. 또한, 음식점을 비롯해 극장, 영화관, 스포츠 시설 등에 대해서는 「자기방어」와 「주변에 대한 배려」에 주의하면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